

성범죄 및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한다. 이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달리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고를 꺼리거나 지연하게 되기도 한다(박명숙, 한인영, 유서구, 2008; Grubb & Harrower, 2008).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일부 언론은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통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사건을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이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란 범죄 발생 후 관련 사법기관이나 가족 혹은 지인, 언론 보도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나 소문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일컫는다(박명진, 양난미, 이명신, 2014). 성범죄 사건에서의 이차 피해 조사 결과, 사람들은 성범죄 사건을 접했을 때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홍주현, 2017) 범죄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을 나타냈다(Cameron & Stritzke, 2003). 또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거나(Hockett, Smith, Klausing & Saucier, 2016; Simonson & Subich, 1999) 성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으며(Simonson & Subich, 1999) 피해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발견되었다(Yamawaki, 2007). 결과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여론과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Hockett et al., 2016).

Bieneck과 Krahe(2011)는 이렇게 왜곡된 통념이 성범죄에만 존재하는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강간과 강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비난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사람들은 강도 사건보다 강간 사건 피해자를 상대적으로 더 비난하며, 가해자는 덜 비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에는 성범죄 사건과 비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 비난 등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Bieneck과 Krahe(2011)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들도 있다. Felson과 Palmore(2018)는 강간, 강도, 살인, 폭행의 4가지 범죄 유형에서 판단자들의 성별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범죄 유형 모두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과 절도 사건을 비교한 Brems와 Wager(1994)에서는 오히려 절도 피해자가 강간 피해자보다 더 큰 비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다른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간 진행된 소수의 연구에서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성범죄와 비 성범죄 사건을 다르게 판단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과거에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었던 피해자 비난 등 범죄 인식에 관한 연구를 확장시키고, 다른 종류의 범죄 피해자들과는 달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적 시선, 즉, '이중 잣대'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그동안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가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피해자 비난에 있어서의 성차 및 연령차

성별은 성범죄 피해자 비난에 관한 연구에서 항상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즉 남성이 여정보다 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윤병해, 고재홍, 2006;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이은숙, 강희순, 2014; 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 Bell, Kuriloff & Lottes, 1994;

Grubb, Turner, 2012; Schult & Schneider, 1991),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이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한다는 결과(양동옥,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 Cameron & Stritzke, 2003; Yamawaki, 2007)가 혼재되어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범죄 피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정당한 세상 이론(just world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당한 세상 이론이란 세상은 공정하므로 불행한 일은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은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Lerner, 1980). 이는 여성들이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Maurer & Robinson, 2008). 이와 달리 남성이 피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성차가 없다고 나타난 연구들은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차별적 태도나 강간통념 수용도 등을 뽑고 있다. 즉, 성차별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이거나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더 비난한다는 것이다(양동옥 등, 2012; Abrams et al., 2003; Cameron & Stritzke, 2003; Viki & Abrams, 2002). 이렇게 혼재된 연구 결과는 그동안 미처 고려하지 못한 참가자들의 연령대나 개인의 태도 등의 변인이 성별과 피해자 비난의 관계에 외생변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령은 성별에 비해 피해자 비난에 있어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다. 이는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연구 참가자를 대학생이나 20~30대의 젊은 층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국내에서 연령과 성범죄 이차 피해 및 이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이선경 등(2015)이 거의 유일하다. 이선경 등(2015)이 20~60대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관대

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범죄 인식 차이가 여러 유형의 범죄에서 관찰된 바 있다. Adams-Price, Dalton & Sumrall(2004)은 절도, 교통사고, 방화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에 판단자의 나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는데, 이 경우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직접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연령이 성평등 의식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존재한다. 이수연, 김인순, 김현정, 김민정(2017)이 1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의식을 보였다. 또한 연성진, 김왕배, 원영신, 이경용, 홍영오(2008)의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훈육을 위한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사소한 상황에서는 폭력이 법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세대 간의 의식 차이가 커지고, 연령에 따라 성평등 인식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인식까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피해자 비난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할 것이다. 동시에,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성범죄가 아닌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가 성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 Glick & Fiske, 1996, 2001)은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적대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온정적인 양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설명한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사회에서 소수 집단에 가지는 부정

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근거하나, 부정적인 인식만이 차별의 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온정적 성차별의식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별의 기제로 작동한다(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성희롱 태도 척도(Sexual Harassment Attitude Scale: SHAS), 강간통념 수용도, 대인 폭력 허용도, 성역할 고정관념, 공격적 성행동, 데이트 폭력, 스토킹 통념 등 다양한 인식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은, 김지현, 2016; 안상수 등, 2007; 양동욱 등, 2012; 오주령, 박지선, 2019; 윤병해, 고재홍, 2006; 조무용, 김정인, 2016; 최인숙, 김정인, 2015; Viki & Abrams, 2002). 또한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피해자 비난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는데(권혜림, 2019; 서윤정, 박지선, 2013;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홍영은, 박지선, 2018; Viki & Abrams, 2002; Wiener, Hurt, Russell, Mannen, & Gasper, 1997), 특히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병해, 고재홍, 2006; 이정원, 김혜숙, 2012; Davies, Gilston & Rogers, 2012).

한국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상수 등(2007)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척도(K-MSI)'를 사용하고 있다. 안상수 등(2007)에 의하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온정적,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양가적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성범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대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의

식과 함께 대인 폭력 허용도를 살펴보았다.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성범죄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에 비해, 대인 폭력 허용도는 전반적인 대인 폭력 범죄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더 쉽게 정당화하고 받아들이며(김예정, 김득성, 1999; 김재엽, 1998; O'Keefe, 1997; Tontodonato & Crew, 1992) 갈등 상황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장희숙, 조현각, 2001; 최인섭, 이순래, 노성호, 박순진, 박형민, 2005; Anderson, Benjamin, Wood & Bonacci, 2006).

대인 폭력 허용도가 성범죄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대인 폭력 허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강제추행, 강간, 강간 미수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가해자에게는 약한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평가하였다(김은지, 박지선, 2011). 한편 비 성범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연구는 성범죄에 대한 연구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 폭력 허용도의 영향이 폭행과 같은 비 성범죄에 대한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인 폭력 허용도와 성별의 관계는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마찬가지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혜선, 박지선, 2018; 문지혜, 정혜정, 2015; Funk, Elliott, Urman, Flores & Mock, 1999). 대인 폭력 허용도는 연구의 주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연구된 범죄 유형은 다르지만(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이정인, 김창대, 2015; 최유진 외, 2016), 전반적으로 성차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에 따른 대인 폭력 허용도의 차이는 관련 연구가 비교적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몇몇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폭력 허용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순, 원영애, 정숙경, 1999; 최유진 등, 2016). 본 연구는 대인 폭력 허용도에 있어서의 성차와 연령차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대인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강간과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성별과 연령대가 폭행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 폭력 허용도가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 및 책임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이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온 요인 중 하나는 피해자 비난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어 탓하는 것을 의미한다(윤병해, 고재홍, 2006; Abrams et al., 2003). 피해자 비난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책임(responsibility)’이 있는데, 두 변인은 사건에 대한 귀인 연구에서 종종 함께 조사되어 왔으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Stormo, Lang & Stritzke, 1997). 그러나 비난은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는 해당 대상을 지탄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반면, 책임은 개인이 사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미한다(Bradbury & Fincham, 1990; Finch & Munro, 2007).

Cameron과 Stritzke(2003)은 피해자 비난은 평가자의 가치 판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책임 평가는 가치 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선행 연구들은 두 변인이 서로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구분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을 모두 각각 종속변인으로 측정하고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각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및 가설

지금까지 국내에서 피해자 비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판단자들의 성별이나 성범죄에 대한 통념, 성차별의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과 비 성범죄 사건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비난이 성범죄 사건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연령은 성별만큼 범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성진 등, 2008; 이선경 등, 2015; 이수연 등, 2017; 정순돌, 배은경, 최혜지, 2012; Adams-Price et al., 2004), 대다수의 연구에서 편의상의 이유로 20~30대를 제외한 연령대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와 비 성범죄 사건을 함께 조사하여 범죄 유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연령대를 성별과 함께 고려하여 두 변인이 각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함께 대인 폭력 허용도를 함께 조사하여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아닌 일반적인 대인 폭력에 대한 인식이 성범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효과가 비 성범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변인이 성별과 연령대가 각 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데이터는 서울

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23명으로 이 중 여성은 179명(20대 50명, 30대 48명, 40대 42명, 50대 39명), 남성은 144명(20대 26명, 30대 45명, 40대 32명, 50대 41명)이었다. 여성 참가자와 남성 참가자들의 나이는 최소 21세부터 최대 59세였으며, 여성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38.48세($SD = 11.08$), 남성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40.76세($SD = 10.77$)였다.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chi^2 = 5.347, p = .15$).

연구절차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안내를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을 시작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은 양가적 성차별의 식 척도와 대인 폭력 허용도 척도에 응답하였다. 이후 강간과 폭행 등 범죄 사건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얼마나 비난받을 만한지, 사건에 대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성별과 출생연도를 기재하였다.

연구변인

독립 변인: 성별, 연령, 범죄 유형

독립변인은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 범죄 유형으로 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1, 남성을 2로 코딩하였으며 연령대는 가장 낮은 20대부터 가장 높은 50대까지 순차적으로 코딩하였다. 범죄 유형은 그동안 주로 연구되어 온 강간과 함께 대인범죄라는 맥락에서 강간과 비교할 수 있는 폭행을 설정하였으며, 국내에서 '강간죄'와 '폭행죄'로 형을 선고받은 판례 중 다른 범죄와 경합되지 않은 사건을 참고하여 연구에 사용될 시나리오를 각각 1개씩 구성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실제 판례와 동일하게 가해자는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름으

로 인한 편향을 방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가해자는 '김▲▲'으로, 피해자는 '이□□'으로 표시하였다. 사용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폭행

김▲▲(남)은 이전에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게 된 이□□(여)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월 ○일 오전 03시 09분 경, 김▲▲은 이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일 뒤 김▲▲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 인조가족으로 된 쿠션베개를 이□□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시나리오 2. 강간

○월 ○일 오후 10시 30분경, 김▲▲(남)은 이□□(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이□□의 어깨를 붙들고 이□□를 공원으로 끌고 갔다. 김▲▲은 이□□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밀치는 등 저항하는 이□□를 억압하였다. 이후 김▲▲은 이□□의 옷을 벗기고 이□□를 강간하였다.

종속 변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책임 판단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은 각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비난), 사건에 대해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책임)를 평가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난의 정도를 묻는 문항은 '위 사건에서 김▲▲(가해자)/이□□(피해자)는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책임 정도는 '위 사건에서 김▲▲(가해자)/이□□(피해자)는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였고 테이터 코딩 시 역코딩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난 및 책임 정도에 대하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총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매개 변인: 양가적 성차별의식, 대인 폭력 허용도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대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 변인을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성범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양가적 성차별의식 척도나 강간 통념 수용도와 같은 성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와 비 성범죄에 대한 판단을 비교하기 위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폭력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인 폭력 허용도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의식: 양가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 안상수 등, 2007)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절반인 12개 문항은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나머지 12개 문항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한다.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지 않다는 차별 의식이 기저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차별을 주로 나타내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여성에게 우호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구분된다.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하위 척도의 점수는 해당 척도를 구성하는 12개의 문항의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하였다. 따라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만점은 각 48점씩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4로 나타났으며,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내적 일치도는 .899이었다.

대인 폭력 허용도: 대인 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인섭 등(200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7개이며,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의 폭력 사용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괜찮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로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전적으로 동의한다(7점)'까지 총 7점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단순 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총점은 49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 폭력 허용도의 내적 일치도는 .899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3.0과 Hayes(2013)의 PROCESS 매크로 3.3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이 종료된 후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여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응답 범주와 평균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원분산분석과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한 경우에는 매개 변인을 투입하여 중다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하여 각 매개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범죄 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1.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의식 및 대인 폭력 허용도 기술통계

연령대	적대적 성차별의식 <i>M (SD)</i>			온정적 성차별의식 <i>M (SD)</i>			대인 폭력 허용도 <i>M (SD)</i>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20대	18.94 (5.52)	27.50 (7.50)	21.87 (7.44)	23.06 (6.26)	29.38 (7.38)	25.22 (7.27)	15.64 (7.45)	21.42 (9.50)	17.62 (8.60)
30대	21.50 (6.60)	27.71 (7.25)	24.51 (7.56)	25.25 (5.42)	30.07 (6.70)	27.58 (6.51)	16.60 (7.98)	18.69 (8.73)	17.61 (8.37)
40대	22.29 (5.65)	26.06 (6.18)	23.92 (6.14)	27.74 (4.88)	31.19 (4.96)	29.23 (5.18)	14.69 (6.87)	18.19 (7.43)	16.20 (7.58)
50대	24.28 (5.39)	29.32 (5.78)	26.86 (6.11)	30.82 (4.83)	32.95 (5.63)	31.91 (5.33)	15.21 (6.76)	19.41 (7.43)	17.36 (7.38)
전체	21.58 (6.10)	27.76 (6.71)	24.33 (7.07)	26.44 (6.10)	31.01 (6.28)	28.48 (6.58)	15.58 (7.30)	19.28 (8.37)	17.23 (8.00)

표 2. 범죄 유형, 성별, 연령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판단 기술통계

범죄 유형	연령대	가해자 비난 <i>M (SD)</i>			가해자 책임 <i>M (SD)</i>			피해자 비난 <i>M (SD)</i>			피해자 책임 <i>M (SD)</i>		
		여자	남자	전체									
폭행	20대	4.24 (0.94)	3.65 (1.20)	4.04 (1.06)	4.00 (1.09)	3.46 (1.14)	3.82 (1.13)	3.16 (1.13)	3.35 (1.16)	3.22 (1.14)	3.66 (1.10)	3.38 (1.10)	3.57 (1.10)
	30대	4.13 (1.04)	4.02 (1.01)	3.31 (1.32)	3.69 (1.48)	3.69 (1.26)	3.69 (1.37)	3.31 (1.32)	3.56 (0.99)	3.43 (1.17)	3.33 (1.36)	3.13 (1.24)	3.24 (1.30)
	40대	3.79 (1.16)	4.41 (0.84)	3.45 (1.11)	3.90 (1.12)	4.00 (1.19)	3.95 (1.15)	3.45 (1.11)	3.31 (1.26)	3.39 (1.17)	3.38 (1.08)	3.47 (1.11)	3.42 (1.09)
	50대	4.38 (0.78)	3.51 (1.05)	3.72 (0.86)	3.90 (1.25)	3.46 (1.05)	3.68 (1.17)	3.72 (0.86)	3.73 (1.05)	3.73 (0.95)	3.56 (1.17)	3.46 (1.16)	3.51 (1.16)
	전체	4.13 (1.01)	3.90 (1.07)	3.39 (1.14)	3.87 (1.24)	3.65 (1.17)	3.77 (1.21)	3.39 (1.14)	3.51 (1.10)	3.45 (1.12)	3.49 (1.18)	3.35 (1.16)	3.42 (1.17)
	강간	20대	4.72 (0.90)	4.27 (1.08)	4.57 (0.98)	4.48 (1.23)	4.19 (1.17)	4.38 (1.21)	1.46 (0.99)	1.81 (0.98)	1.58 (1.00)	2.08 (1.48)	2.27 (1.43)
30대		4.42 (1.07)	4.58 (0.84)	4.49 (0.96)	3.92 (1.57)	4.00 (1.51)	3.96 (1.53)	1.67 (1.21)	1.80 (1.12)	1.73 (1.16)	2.46 (1.60)	2.13 (1.42)	2.30 (1.52)
40대		4.55 (1.04)	4.78 (0.71)	4.65 (0.91)	4.38 (1.31)	4.63 (0.91)	4.49 (1.15)	1.67 (1.03)	1.63 (1.04)	1.65 (1.03)	2.50 (1.53)	1.91 (1.23)	2.24 (1.43)
50대		4.59 (0.99)	4.56 (0.87)	4.58 (0.93)	4.49 (1.10)	4.07 (1.35)	4.28 (1.24)	1.92 (1.33)	2.22 (1.08)	2.08 (1.21)	2.18 (1.28)	2.37 (1.22)	2.28 (1.24)
전체		4.57 (1.00)	4.56 (0.88)	4.57 (0.95)	4.31 (1.33)	4.19 (1.30)	4.26 (1.32)	1.66 (1.14)	1.88 (1.08)	1.76 (1.12)	2.30 (1.48)	2.17 (1.32)	2.24 (1.41)

결 과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 차이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가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분석 결과,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대하여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차별적인 태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대인 폭력 허용도에서는 연령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에 대하여 더 용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는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가 범죄 유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비난 및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범죄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폭행 가해자 비난-강간 가해자 비난, 폭행 가해자 책임-강간 가해자 책임, 폭행 피해자 비난-강간 피해자 비난, 폭행 피해자 책임-강간 피해자 책임 등 서로 대응하는 종속변인을 묶어 범죄 유형을 개체 내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종속변수는 각각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 성별과 연령대는 개체 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강간 사건과 폭행 사건에 대한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각각 찾아내기 위하여 범죄 유형에 따른 이원 분산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 비난에서는 범죄 유

표 3.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의식 및 대인 폭력 허용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partial η^2
적대적 성차별의식	성별	2691.83	1	2691.83	69.50***	.18
	연령대	522.00	3	174.00	4.49***	.04
	성별x연령대	219.98	3	73.33	1.89	.02
	오차	12199.79	315	38.73		
온정적 성차별의식	성별	1353.31	1	1353.31	40.47***	.11
	연령대	1368.47	3	456.16	13.64***	.12
	성별x연령대	181.63	3	60.54	1.81	.02
	오차	10533.41	315	33.44		
대인 폭력 허용도	성별	1174.01	1	1174.01	19.22***	.06
	연령대	159.26	3	53.09	0.87	.01
	성별x연령대	140.49	3	46.83	0.77	.01
	오차	19239.15	315	61.08		

*** $p < .001$

표 4. 성별, 연령대, 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판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partial η^2
가해자 비난	범죄 유형	45.45	1	45.45	77.58***	.20
	성별	1.27	1	1.27	1.93	.01
	연령대	0.98	3	0.33	0.50	.01
	범죄 유형X성별	1.77	1	1.77	3.03	.01
	범죄 유형X연령대	0.96	3	0.32	0.55	.01
	성별X연령대	10.85	3	3.62	5.48***	.05
	범죄 유형X성별X연령대	7.31	3	2.44	4.16**	.04
	개체내 오차	184.52	315	0.59		
개체간 오차	208.11	315	0.66			
피해자 비난	범죄유형	435.85	1	435.85	355.31***	.53
	성별	1.31	1	1.31	2.09	.01
	연령대	9.25	3	3.08	4.93**	.05
	범죄 유형X성별	0.45	1	0.45	0.37	.00
	범죄 유형X연령대	0.29	3	0.10	0.08	.00
	성별X연령대	1.30	3	0.43	0.69	.01
	범죄 유형X성별X연령대	0.88	3	0.29	0.24	.00
	개체내 오차	386.40	315	1.23		
개체간 오차	196.90	315	0.63			
가해자 책임	범죄 유형	39.73	1	39.73	39.80***	.11
	성별	1.89	1	1.89	1.74	.01
	연령대	6.77	3	2.26	2.08	.02
	범죄 유형X성별	0.61	1	0.61	0.61	.00
	범죄 유형X연령대	3.32	3	1.11	1.11	.01
	성별X연령대	5.40	3	1.8	1.65	.02
	범죄 유형X성별X연령대	0.27	3	0.09	0.09	.00
	개체내 오차	314.44	315	1.00		
개체간 오차	342.75	315	1.09			
피해자 책임	범죄유형	218.23	1	218.23	127.87***	.29
	성별	1.29	1	1.29	1.53	.01
	연령대	0.76	3	0.25	0.30	.00
	범죄 유형X성별	0.01	1	0.01	0.00	.00
	범죄 유형X연령대	3.89	3	1.30	0.76	
	성별X연령대	1.41	3	0.47	0.56	.01
	범죄 유형X성별X연령대	7.05	3	2.35	1.38	.01
	개체내 오차	537.60	315	1.71		
개체간 오차	264.84	315	0.84			

** $p < .01$, *** $p < .001$

주. 범죄 유형은 폭행-강간

표 5. 범죄 유형별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partial η^2	
폭행	가해자비난	성별	4.28	1	4.28	4.22*	.01
		연령대	1.46	3	0.49	0.48	.00
		성별x연령대	23.93	3	7.98	7.86***	.07
		오차	319.50	315	1.01		
	가해자책임	성별	3.71	1	3.71	2.53	.01
		연령대	3.73	3	1.24	0.85	.01
		성별x연령대	5.58	3	1.86	1.27	.01
		오차	461.82	315	1.47		
	피해자비난	성별	0.44	1	0.44	0.36	.00
		연령대	9.03	3	3.01	2.41	.02
		성별x연령대	1.78	3	0.59	0.47	.00
		오차	393.25	315	1.25		
피해자책임	성별	1.15	1	1.15	0.84	.00	
	연령대	4.64	3	1.55	1.12	.01	
	성별x연령대	1.35	3	0.45	0.33	.00	
	오차	434.90	315	1.38			
강간	가해자비난	성별	0.04	1	0.04	0.04	.00
		연령대	1.46	3	0.49	0.55	.01
		성별x연령대	5.09	3	1.70	1.90	.02
		오차	281.25	315	0.89		
	가해자책임	성별	0.68	1	0.68	0.40	.00
		연령대	13.13	3	4.38	2.56	.02
		성별x연령대	5.49	3	1.83	1.07	.01
		오차	538.11	315	1.71		
	피해자비난	성별	2.62	1	2.62	2.13	.01
		연령대	9.75	3	3.25	2.65*	.02
		성별x연령대	1.69	3	0.56	0.46	.00
		오차	386.95	315	1.23		
피해자책임	성별	1.43	1	1.43	0.71	.00	
	연령대	0.77	3	0.26	0.13	.00	
	성별x연령대	8.52	3	2.84	1.41	.01	
	오차	632.39	315	2.01			

* $p < .05$, *** $p < .001$

형의 주효과와($F = 77.58, p < .001$)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효과($F = 5.48, p < .001$), 그리고 범죄 유형과 성별, 연령대 세 가지 독립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F = 4.16, p = .007$)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이원 분산 분석 결과에서는 폭행과 강간 가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폭행 가해자 비난에서는 성별의 주효과($F = 4.22, p = .041$),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F = 7.86, p < .001$), 강간 가해자 비난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연령대가 역상호작용(disordinal interaction)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폭행 가해자 비난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40대까지는 폭행 가해자를 비난하는 정도가 낮아지다가 50대에서는 비난 정도가 높아지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40대까지는 폭행 가해자를 비난하는 정도가 높아지다가 50대에 이르러서는 그 정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자 비난에서는 범죄 유형과($F = 355.31, p < .001$) 연령대의($F = 4.93, p = .002$)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은 강간보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더 비난받을 만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자가 더 비난받을 만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 범죄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대의 효과는 강간 피해자 비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65, p = .049$).

마지막으로 가해자 책임과 피해자 책임에 대한 분석에서는 범죄 유형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해자 책임: $F = 39.80, p < .001$, 피해자 책임: $F = 127.87, p < .001$), 즉,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간에서의 책임이 폭행에서의 책임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에서의 책임보다 폭행에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앞서 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 중 성별은 폭행 가해자 비난에만 영향을 미치며, 연령대는 강간 피해자 비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가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매크로(Hayes, 2012)를 이용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는 매개분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방식이나 Sobel 검정(Sobel, 1982)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위의 방식들은 간접 효과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러한 기본 가정이 위배 될 시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허원무, 2013). 이에 따라 최근에는 매개분석을 위하여 Hayes (2012)가 제안 및 배포한 SPSS macro 프로그램 'PROCESS'를 이용하는 추세인데(허원무, 2013), 이 방식은 Sobel 검정과 달리 분포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Hayes, 2009).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매개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감소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성별-폭행 가해자 비난, 연령대-강간 피해자 비난을 대상으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폭행 가해자에 대한 태도는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폭행 가해자 비난이 종속변인인 경우에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성별이 폭행 가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개효과

대인 폭력 허용도가 성별과 폭행 가해자 비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그림 1 참조). 이때 폭행 가해자 비난에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석에서 연령대는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성별이 폭행 가해자 비난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표 6. 성별과 폭행 가해자 비난에서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성별 → 폭행 가해자 비난	-0.233	0.117	-.4625	-.0036
직접효과				
성별 → 폭행 가해자 비난	-0.0841	0.1272	-.3336	.1650
간접효과				
성별 → 대인 폭력 허용도 → 폭행 가해자 비난	-0.0780	0.0389	-.1587	-.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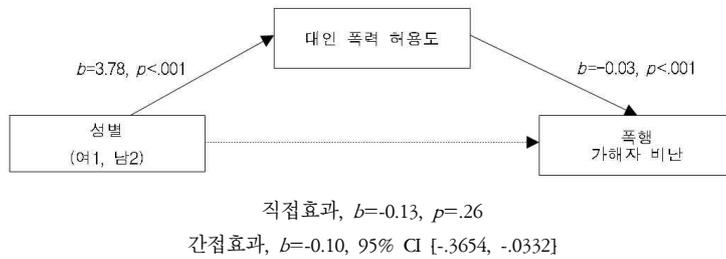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폭행 가해자 비난 간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 모형

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인 대인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78, t(320) = 4.31, p < .001$). 다음으로 대인 폭력 허용도가 폭행 가해자 비난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마찬가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3, t(317) = -3.60, p < .001$). 마지막으로 모형에 대인 폭력 허용도를 투입하자 성별이 더 이상 폭행 가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 폭력 허용도가 성별과 폭행 가해자 비난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연령대가 강간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개효과

연령대와 강간 피해자 비난의 관계에 대한 매개분석 또한 이전과 동일한 절차로 실시하였다(표 7 참조). 먼저, 연령대가 강간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연령대와 매개변인의 직접 효과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의식($b = 1.43, t(321) = 4.10, p$

표 7. 연령대와 강간 피해자 비난에서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연령대 → 강간 피해자 비난	0.143	0.056	.0317	.2518
직접효과				
연령대 → 강간 피해자 비난	0.128	0.056	.0178	.2376
간접효과				
연령대 → 적대적 성차별의식 → 강간 피해자 비난	0.027	0.017	.0002	.0662
연령대 → 온정적 성차별의식 → 강간 피해자 비난	-0.003	0.027	-.0635	.0427
연령대 → 대인 폭력 허용도 → 강간 피해자 비난	-0.010	0.020	-.0514	.0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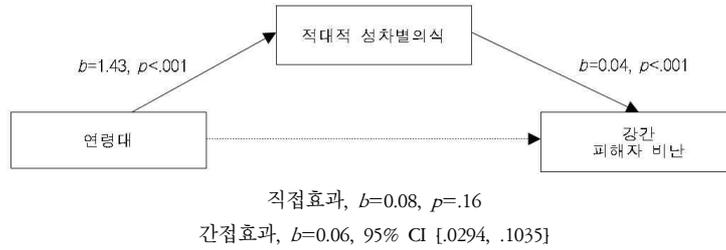


그림 2. 연령대와 강간 피해자 비난 간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모형

< .001)과 온정적 성차별의식($b = 2.17, t(321) = 7.01, p < .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 폭력 허용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21, t(321) = -0.53, p = .60$). 다음으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인 폭력 허용도($b = 0.05, t(318) = 5.92, p < .001$)를 제외한 적대적 성차별의식($b = 0.02, t(318) = 1.87, p = .06$)과 온정적 성차별의

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0, t(318) = -0.14, p = .89$). 그러나 병렬매개분석결과에서는 연령대의 b 값이 감소하였으며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대적 성차별의식만이 연령대와 강간 피해자 비난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단일매개효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8. 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 차이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partial η^2
폭행 가해자	비난-책임	1.24	1	1.24	1.23	.00
	비난-책임x성별	0.01	1	0.01	0.01	.00
	비난-책임x연령대	0.06	1	0.06	0.06	.00
	개체내 오차	321.52	320	1.01		
강간 가해자	비난-책임	0.41	1	0.41	0.44	.00
	비난-책임x성별	0.46	1	0.46	0.05	.00
	비난-책임x연령대	0.03	1	0.03	0.03	.00
	개체내 오차	295.05	320	0.92		
폭행 피해자	비난-책임	4.88	1	4.88	5.73**	.02
	비난-책임x성별	2.15	1	2.15	2.53	.01
	비난-책임x연령대	3.21	1	3.21	3.78	.01
	개체내 오차	272.48	320	0.85		
강간 피해자	비난-책임	17.10	1	17.10	15.00***	.05
	비난-책임x성별	4.15	1	4.15	3.64	.01
	비난-책임x연령대	1.78	1	1.78	1.56	.01
	개체내 오차	364.79	320	1.14		

주. 성별과 연령대는 통제변인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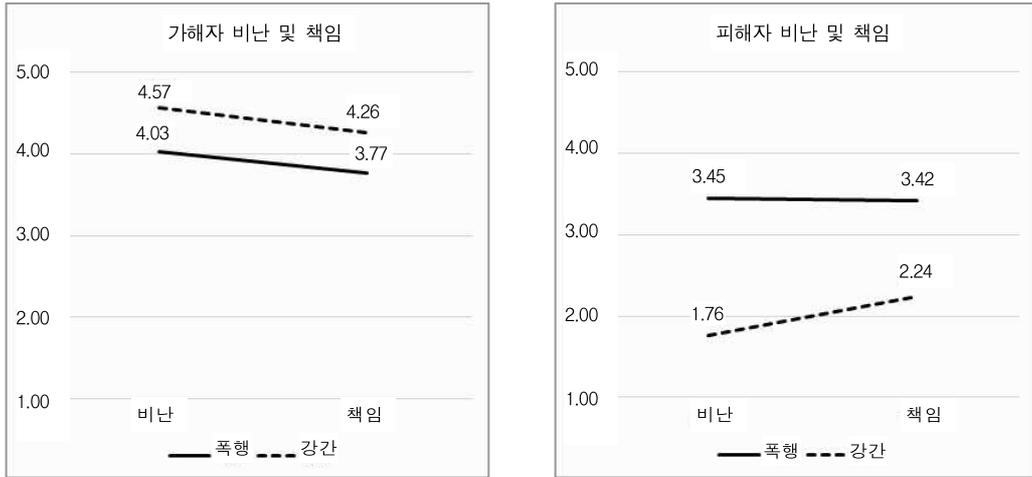


그림 3.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 판단 평균

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 차이

마지막으로, 범죄 유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난과 책임을 묶어 개체 내 요인으로 설정한 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그림 3 참조). 이 때 성별과 연령은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서는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비난과 책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비난과 책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책임보다 비난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책임: $M = 3.42$, $SD = 1.17$, 비난: $M = 3.45$, $SD = 1.12$), 강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로 비난보다 책임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책임: $M = 2.24$, $SD = 1.41$, 비난: $M = 1.76$, $SD = 1.1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대, 양

가적 성차별의식, 대인 폭력 허용도 등이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 등 범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 비난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는 성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판단자의 성별보다는 성차별적 태도와 같은 인식이 더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양동욱 등, 2012; Abrams et al., 2003; Cameron & Stritzke, 2003; Viki & Abrams, 2002; Yamawaki, 2007).

연령대에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적 신념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 고(임인혜, 윤민지, 유성경, 김은석, 손은영, 윤은주, 2018), 성역할 인식에 대해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정순돌 등, 2012)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대인 폭력 허용도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가적 성차별의식에서만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교육과 언론 보도 방식 그리고

법률의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계는 지속적으로 교과서 내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왔으며(오재림, 2006), ‘정조에 관한 죄’였던 강간죄는 1995년부터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강간법을 지칭하던 ‘가정과피범’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성차별적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대에 따른 성차별의식의 차이에 반영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두 가지 매개 모형이 나타났다. 먼저, 폭행 사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해자를 덜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인 폭력 허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폭행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사회화를 통해 학습한 대인 폭력 허용도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간 사건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였으며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대가 변함에 따라 성평등 의식이 확산된 것을 보여준다. 한편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는 폭행에 대한 판단에서만 나타났으며 강간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대인 폭력 범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매개효과는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양가적 성차별의식이나 대인 폭력 허용도는 고정 불변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교육이나 제도를 통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의식의 고양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차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함의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피해자 비난이나 책임,

이차 피해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성범죄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한계를 벗어나, 강간 외에도 폭행 범죄를 추가해 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Bieneck과 Krahé(2011)가 제시한 이중 잣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선행 연구와 달리, 참가자들은 폭행 피해자보다 강간 피해자를 덜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가해자보다 강간 가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즉, Bieneck과 Krahé(2011)가 주장한 ‘이중 잣대’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비난과 책임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강한 비난을 했지만, 그들에게 묻는 책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정도보다 책임 정도를 낮게 판단한 반면,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는 낮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은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지는 않더라도 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 유형에 따른 비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 이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 등 귀인 범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난과 책임의 차이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에 의해 10세를 기준으로 참가자들의 연령대를 구분하였다. 연령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연구 목적이거나 연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박재홍(2001, p. 55)은 세대나 연령의 효과가 “출생 이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에 기인한 것인지(코호트효과), 현재의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에 기인한 것인지(연령효과), 혹은 특정한 관찰 시점에 기인한 것인지(기간효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연령대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사실은 연령효과나 기간효과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폭행 가해자 비난에서 나타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거나 종단 연구를 실시해 본다면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 수의 제한으로 인한 타당도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강간죄’와 ‘폭행죄’로 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참고하여 사건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한 개씩 구성하였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맥락 등 연구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요인들이 외생변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표면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관계이고 피해자가 음주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관계나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피해자 비난 혹은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혜림, 2019; 양동욱 등, 2012; Bieneck & Krahe, 2011; Cameron & Stritzke, 2003). 이에 반해 이러한 요인들이 비 성범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피해자 음주 여부가 비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으로 인한 외생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비 성범죄 사건을 함께 조사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국외에서도 성범죄와 비 성범죄 사건에서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며, 일관된 결과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이중 잣대’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간과 폭행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강간 피해자가 비난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피해자들과는 달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비난과 책임 판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범죄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범죄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에 관한 인식을 살펴 보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이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범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할 때에 주요 변인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던 연령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연령대에 따라 강간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연구할 때 판단자의 연령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폭행 사건에서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dams-Price 등(2004)에서 절도를 비롯한 비 성범죄의 피해자 비난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다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박지선은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양형 판단에서의 의사결정,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역동과 행동 변화 등이 있다.

조은경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법/범죄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이에 대한 예방 등이 있다.

참고문헌

권혜림 (2019). 수사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2차 피해 인식요인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671-681. doi:10.5392/JKCA.2019.19.01.671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1): 가해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27-42.

김은지,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법, 2(2), 171-183.

김재엽 (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87-114.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김혜선, 박지선 (2018). 동물학대의 재범방지 및 처벌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성별 및 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8(3), 51-82.

문지혜, 정혜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

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팅 폭력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3(4), 627-653.

박명숙, 한인영, 유서구 (2008).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6(2), 123-146.

박명진, 양난미, 이명신 (2014).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여성연구, 87, 99-126.

변화순, 원영애, 정숙경 (2000).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58(1), 48-76.

서운정,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33-60.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연성진, 김왕배, 원영신, 이경용, 홍영오 (2008).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재립 (2006). 교육부에서 성평등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과 과제. 아시아여성연구, 45(1), 235-265.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19(6), 79-107.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9(1), 65-81.
- 이수연, 김인순, 김현정, 김민정 (2017).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doi: 10.14370/jewnr.2014.20.1.48
- 이정원, 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47-73.
-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관련 정책 및 강간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 208-209.
- 이정인, 김창대 (2015).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초등학교생의 공격성 및 또래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5), 253-266.
- 임인혜, 윤민지, 유성경, 김은석, 손은영, 윤은주 (2018). 한국판 가부장 신념 척도 (PBS-K)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4), 125-143.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정순돌, 배은경, 최혜지 (2012). 세대별 부양의식 및 성역할인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17(2), 5-23.
- 조무용, 김정인 (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109-134.
- 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 단채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89-313.
- 최유진, 이택면, 황정임, 마경희, 주재선, 김은지, 문희영, 이현재 (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최인섭, 이순래, 노성호, 박순진, 박형민. (2005). *한국인의 갈등해소방식: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doi:10.19158/kjwp.2015.09.20.3.277
- 허원무 (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한국비즈니스리뷰*, 6(3), 43-59.
- 홍영은, 박지선 (20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18.
- 홍주현 (2017).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hierarchy)에 따른 매체가시성(media visibility)의 양과 질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20-534. doi:10.5392/JKCA.2017.17.08.520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11-125. doi:10.1037/0022-3514.84.1.111
- Adams-Price, C. E., Dalton III, W. T., & Sumrall, R. (2004). Victim blaming in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Variations on the severity effec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4), 289-295. doi:10.1023/B:JADE.0000044532.83720.74
- Anderson, C. A., Benjamin Jr, A. J., Wood, P. K., & Bonacci, A. M. (2006).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Velicer attitudes toward violence scale: Evidence for a four factor model.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2(2), 122-136. doi:10.1002/ab.2011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l, S. T., Kuriloff, P. J., & Lottes, I. (1994). Understanding attributions of blame in stranger rape and date rape situations: An examination of gender, race, identification, and students' social perceptions of rape victim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9), 1719-1734. doi:10.1111/j.1559-1816.1994.tb01571.x
- Bieneck, S., & Krahé, B. (2011). Blaming the victim and exonerating the perpetrator in cases of rape and robbery: Is there a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1785-1797. doi: 10.1177/0886260510372945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33.
- Brems, C., & Wagner, P. (1994). Blame of victim and perpetrator in rape versus thef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3), 363-374. doi:10.1080/00224545.1994.9711741
- Cameron, C. A., & Stritzke, W. G. (2003). Alcohol and Acquaintance Rape in Australia: Testing the Presupposition Model of Attributions About Responsibility and Bla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5), 983-1008. doi:10.1111/j.1559-1816.2003.tb01935.x
- Davies, M., Gilston, J., & Rogers, P. (2012).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rape myth acceptance, female rape myth acceptance, victim blame, homophobia, gender roles, and ambivalent sex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4), 2807-2823. doi:10.1177/0886260512438281
- Felson, R. B., & Palmore, C. (2018). Biases in blaming victims of rape and other crime. *Psychology of Violence*, 8(3), 390-399. doi:10.1037/vio0000168
- Field, A. (2013).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4th ed.). London: Sage.
- Finch, E., & Munro, V. E. (2007). The demon drink and the demonized woman: Socio-sexual stereotypes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 in rape trials involving intoxicants. *Social & Legal Studies*, 16(4), 591-614. doi:10.1177/0964663907082737
- Funk, J. B., Elliott, R., Urman, M. L., Flores, G. T., & Mock, R. M. (1999). The attitudes towards violence scale: A measure for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11), 1123-1136. doi:10.1177/088626099014011001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doi:10.1037/0022-3514.70.3.491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doi:10.1037/0003-066X.56.2.109
- Grubb, A., & Harrower, J. (2008). Attribution of blame in cases of rape: An analysis of participant gender, type of rape and perceived similarity to the victi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5), 396-405. doi:10.1016/j.avb.2008.06.006
-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43-452. doi:10.1016/j.avb.2012.06.002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ayes, A. F. (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doi.org/10.1111/jedm.12050
- Hockett, J. M., Smith, S. J., Klausning, C. D., & Saucier, D. A. (2016). Rape myth consistency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ing rape victims: A meta-analysis. *Violence Against Women, 22*(2), 139-167. doi:10.1177/1077801215607359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The Belief in a just World* (pp. 9-30). Boston: Springer. doi:10.1007/978-1-4899-0448-5
- Maurer, T. W., & Robinson, D. W. (2008). Effects of attire, alcohol,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date rape. *Sex Roles, 58*(5-6), 423-434. doi:10.1007/s11199-007-9343-9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doi:10.1177/088626097012004005
- Schult, D. G., & Schneider, L. J. (1991). The role of sexual provocativeness, rape history, and observer gender in perceptions of blame in sexual assaul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1), 94-101. doi:10.1177/088626091006001007
- Simonson, K., & Subich, L. M. (1999). Rape perceptions as a function of gender-role traditionality and victim-perpetrator association. *Sex Roles, 40*(7-8), 617-634. doi:10.1023/A:1018844231555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tormo, K. J., Lang, A. R., & Stritzke, W. G. (1997). Attributions About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Alcohol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4), 279-305.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1), 3-14.
- Viki, G. T., & Abrams, D. (2002). But she was unfaithful: Benevolent sexism and reactions to rape victims who violate traditional gender role expectations. *Sex Roles, 47*, 289-293. doi:10.1023/A:1021342912248
- Wiener, R. L., Hurt, L., Russell, B., Mannen, K., & Gasper, C. (1997).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The effects of gender, legal standard, and ambivalent sexism. *Law and Human Behavior, 21*(1), 71-93. doi:10.1023/A:1024818110678
- Yamawaki, N. (2007). Rape perception and the function of ambivalent sexism and gender-role traditiona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4), 406-423. doi:10.1177/0886260506297210
- 1 차원고접수 : 2019. 06. 21.
수정원고접수 : 2020. 01. 14.
최종게재결정 : 2020. 02. 13.

Differences of Victim Blaming in Rape and Assault: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and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Eunkyung Jo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blaming the victim and perpetrator by participants' sex and age in different types of crime. A total of 323 participants(179 female, 144 mal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y their age(20~29, 30~39, 40~49, 50~59) read a case of rape and assault and rated on victim and perpetrator blaming and perpetrator sentencing. Additionally,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ambivalent sexism scale and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scale in order to examine how their ambivalent sexism and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affected evaluations of victim and perpetra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existed differences in blaming victim and perpetrator between rape and assault cases. In a rape case, the age of participants had an effect on victim-blaming, such that the older the participants, the more they blamed the victim. This effect was mediated by hostile sexism. In an assault case, male participants blamed the perpetrator less than female participants did, which was mediated by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in South Korea that compared judgment toward victim and perpetrator between sexual violence and non-sexual violence, considering participants' age as well as their sex.

Keywords: victim blaming, crime type, age differences, ambivalent sexism,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